

## 희수 맞아 첫 시집 ‘고향길’ 펴낸 최승호 前광주일보 사장

# “20대의 열정 기억하며 세월 흔적 담아내”

시를 좋아하던 소년이 있었다. 고등학교 2학년. 대한적십자사가 주최한 전국청소년 백일장에서 ‘목련’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그는 시와 인연을 맺었다.

시인을 꿈꾸던 젊은이는 세월이 흘러 신문기자가 되었고, 사회를 향해 날카로운 글들을 써내는 언론인으로 40여년을 보냈다.

잊고 있던 20대의 열정이 뒤늦게 그를 밟았다. 일흔 다섯이 되던 해 ‘등단’이라는 점차를 걸쳐 ‘늦깎이 시인’이 되었고, 희수(壽壽)를 맞아 첫 번째 시집을 내놓았다.

최승호(77) 전 광주일보 사장이 생애 첫번째 시집 ‘고향길’을 펴냈다. 책 말미에는 ‘설의은 맹감 같기도 하고

야산에 아무렇게나 매달린 돌배 같기도 하지만 나이 77을 넘어가는 푸다거리로 생각해 줬으면 한다’는 발문이 실렸다.

“허허, 거창한 시집이 아니예요. 20대의 열정을 기억하던 한 사람이 이제 작은 꿈 하나를 이뤘다고 보면 될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도 시집 하나 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을챙이 기자 시절 지역 문우들과 어울리며 ‘시에술’ 등으로 활동하기도 했지만 이후에는 기사쓰느라 아예 시집 접어버렸죠.”

신문쟁이 노릇하느라 등단은 엄두도 못내던 그는 일흔 다섯이 되던 어느 날 동인으로 함께 어울렸던 김혁성 시인과 우연찮게 만났고, “이제 제대로 시

를 한번 써보라”는 권유를 받고 월간 ‘한국시’를 통해 정식으로 등단했다.

이번 작품집에 실린 시는 모두 100여편. 1부와 2부는 자연에 대한 동심과 일상의 생활시를 중심으로 엮었고, 3부는 먼저 떠난 아내를 그리는 마음을, 4부는 늙어가는 인생의 덧없음을 이야기한 시들을 담았다.

“주변에서 신문의 칼럼 같은 산문 시를 써 보라는 권유도 있었는데 동화적이고 서정적인 시를 쓰고 싶었어요. 나이를 먹다 보니 인생에 대한 관조랄까, 자기성찰이라 할까 이런 게 생기더군요. 시물에 대한 생각들도 많아지고 무심코 지나치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제대로 눈길 한번 주지 않고 하찮게 생각하는 것들도 제각기

사는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개미에게’, ‘빨래와 참새’ 등은 그의 사물과 자연에 대한 애정이 묻어나는 시편들이다.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낸 애듯한 마음이 담긴 시들도 눈길을 끈다.

“오랫동안 아팠던 아내를 데리고 서울 병원을 왔다갔다하면서 저도 모르게 삶에 대한 의미를 많이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느꼈던 생각들을 시어로 읊기기도 했지요.”

이번 시집의 출판 기념회는 오는 25일 오후 3시 광주학생회관 1층에서 열린다.

“친구들 지인들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이기도 해요. 모두를 부담 없이



어서서 서로 얼굴도 보고 이야기도 나눴으면 합니다.”

1958년 전남대 국문과 재학중 호남신문 기자로 언론 생활을 시작한 최전 사장은 전남일보(광주일보 전신) 편집국장, 광주일보 주필·편집인·사장 등을 지냈으며 조선대 법인 이사장, 광주전남언론인 회장을 역임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조선대부고 재학생 ‘진로탐색의 날’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교장 강종근)는 최근 1, 2학년 재학생 203명이 참가한 가운데 (주)나영산업(대표 고정주) 등지에서 ‘진로탐색의 날 행사’를 가졌다.

〈조대부고 제공〉

## 생활체육 광주시나주시연합회 어르신 낚시대회



생활체육 광주시나주시연합회(회장 나광진)는 최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외 계층 어르신 120명을 초청, 광산구 융동 저수지에서 연합회장비 제3회 어르신낚시 대회를 개최했다.

## 국제로타리 3710지구 제30년차 지구대회



국제로타리 3710지구 (총재 송삼홍) 제30년차 지구대회가 최근 2000여 회원과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라마다플라자호텔과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열렸다.

## 서구 자원봉사센터 맞춤형 통합자원봉사



광주시 서구 자원봉사센터(소장 고광태)는 22일 민속촌(대표 황의남)의 후원과 시영종합사회복지관의 협력으로 풍암중학교에서 주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식사대접과 안과·한방·내과진료 등 맞춤형 통합자원봉사를 펼쳤다.

## 광주시 ‘청결·친절 서비스 제공 다짐대회’



광주시는 23일 시청 회의실에서 광주지역 음식·숙박업 단체 대표 8명과 5개 자치구 식품·공중위생담당 지원 등 총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종 국제행사의 성공 개최를 위한 ‘청결·친절 서비스 제공 다짐대회’를 가졌다.

## ‘가정위탁의 날’ 기념 광주 정준영씨 장관상

초록우산 광주 정위탁지원센터의 정준영(49·광주시 남구)씨가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9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2005년부터 위탁가정사업에 참여한 정씨는 모두 2명의 위탁아동을 이미 친가로 복귀시키고 3번째 위탁아동을 양육하고 있다. /김경인기자 kki@

## “스위스관 보며 물의 소중함 다시 한번 깨닫길...”



### 여수박람회 찾은 토마스 쿠퍼 주한 스위스대사

전하고 싶어하는 핵심 메시지다.

쿠퍼 대사는 지난 21일 박람회 스위스관에서 열린 ‘국가의 날’ 행사에 참석, “스위스는 유럽의 수원(水源)으로 물을 수출할 뿐 아니라, 소중하게 이용하고 보호해야 하는 점에 대해서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 물의 소중함을 박람회장을 찾는 전 세계인들과 공유하면서 환경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보호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전시관을 꾸몄다”고 말했다.

내륙 국가인 스위스가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인’을 주제로 한 여수박람회에 참여한 이유도 간단하다. 기후 변화로 전 세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인류의 미래에

대한 고민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인식에서다.

이 때문에 스위스관 대기공간을 지나 산 속을 걷는 느낌이 나도록 조성된 지하통로에 들어서면 물을 주제로 한 다양한 메시지가 담긴 문장을 만나게 된다. ‘21세기 말까지 스위스 빙하의 50~90%가 사라질 겁니다’라는 위협적인 메시지도 눈에 띈다.

쿠퍼 대사는 “빙하가 녹고 있는 것은 스위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라며 “기후 변화로 나타나는 문제의 심각성을 제자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화두’로 삼아 모든 분야에서 실천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사진=김진수기자 jeans@

## 대통령기 전국 등산대회 광주시산악연맹 종합 3위

광주시산악연맹이 제45회 대통령기 전국 등산대회에서 종합순위 3위를 차지했다.

(사)대한산악연맹 주최로 지난 19~20일 인천시 소래산 일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95개팀 285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10개 팀 30명의 선수가 참가한 광주시산악연맹은 여자 대학부에서 광주학생산악연맹이 1위, 남자대학부에서 전남대산악연맹이 3위를 차지했다. 또 남자 일반부의 광주학생산악연맹OB과 여자 일반부의 황평주등반교실이 각각 3위를, 여자 장년부에서 나사모산우회가 3위에 오른 등 역대 최고의 성적을 기록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묘공당 대행 스님 입적



‘비구니계 큰스승’으로 불려온 묘공당(妙空堂) 대행(大行) 스님이 22일 새벽 0시께 경기도 안양 한마을 선원에서 입적했다. 법사 63세, 세납 86세.

대행스님은 1972년 지금의 한마을 선원인 대한불교회관을 건립해 선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적극적인 포교활동을 펼쳤다. 국내 최초의 영탁공원 조성, 한글 뜻풀이 경관의 보급, 한마음과학원 설립 등 실천적이고 현대적인 다양한 포교 방향들을 제시했다.

분향소는 한마음선원 본원에 마련됐으며 영결식은 26일 오전 10시. /연합뉴스

## 순천소방서 김재중 소방장 전남 첫 소방안전교육사 자격

순천소방서(서장 나윤환)소속 해룡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강재중 소방장이 최근 실시된 제3회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합격해 전남에서 최초로 자격을 취득했다.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보육시설의 영·유아 및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의 기획·진행 평가 및 교수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동부취재부=예정열기자 yjy@

## 내방

▲당 량(중국 광주총영사관 부영사)씨 ▲두사곤(〃)씨 ▲유근기(광주지방기상청 예보과장)씨 ▲정덕환(〃 예보관)씨

## 전남우정청 내일부터 여수서 우체국문화제

전남지방우정청(청장 김병수)은 24일부터 5일간 여수 진남문에 회관에서 우체국의 다양한 문화를 선보이는 우체국문화제를 개최한다.

이번 문화제는 정이 담긴 손 편지와 우체국 관련 시, 그림, 그리고 역사를 기억하는 우표와 사진 전시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체국 사람들이 현장에서 직접 쓴 글과 그림도 선보인다.

이와 함께 2012 여수세계박람회 주제인 바다를 소재로 한 제25회 ‘남도우포전시회’와 ‘예쁜 우편한 사진 콘테스트’ 일상 작품 전시회도 관람객의 즐거움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수 청장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하면서, 문화의 중심이자 예술의 고장인 남도 문화의 향기가 우체국문화와 어우러져 전 국민들에게 널리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전남우체국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분향소는 한마음선원 본원에 마련됐으며 영결식은 26일 오전 10시. /연합뉴스

으로 음향장비(엠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 모집

▲2012년도 광주시 문화예술강사 = 25일(수) 오후 6시까지 대동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사업단 062-674-1366, 062-671-4050.

▲광주노인보호전문기관 =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및 신고 전화 내용비밀 보장 1577-1389.

▲광주해비리아 아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 = 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에게 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료·법률 지원 및 심리 치료 등 원스톱 서비스 062-232-1375, www.fochild.or.kr

▲중고컴퓨터 기증하실 분 = 광주·전남내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중고 PC를 기증하실 개인, 단체, 기관 환영. (사)장애인먼저실천 광주·전남운동본부 062-511-0030.

▲무료자선봉사 = 장애인 등 불우 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용 회원 = 청소년 댄스 뮤지컬 프로그램

법 “A-YO!! 내가 전설이다!” 12월 9일까지(매주 토요일 오후 2시~4시) 청소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실시. 균단정준 062-430-5257, 사직도서관 062-613-7772.

## 부 음

▲권오상씨 별세 히승기·옹기·애숙·정온·수현·정혜·정숙씨 모친상 = 밭인 24일(목)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박금순씨 별세 장경상·영안·영현·정숙씨 모친상 = 밭인 23일(수) 무등장례장 201호 062-515-4488.

▲박진숙씨 별세 김현우·정준희·임현우·임현숙·임현숙·임현숙 = 밭인 23일(수) 무등장례장 201호 062-515-4488.

▲마을 까지 편안한 금호 장례식장

태(전 시의원·정다운새마을금고이사장)·임달(전남외국어고교장)·영준(전 광양제철)씨 모친상 이용섭·김선학·빙모상 = 밭인 23일(수) 그린장례식장 4층 장궁분향소 010-6317-1563.

▲권오상씨 별세 하은씨 부친상 = 밭인 23일(수) 무등장례장 201호 062-515-4488.

▲박진숙씨 별세 영수·주현·미현씨 부친상 김호성씨 빙부상 = 밭인 23일(수) 무등장례장 202호 062-515-4488.

▲김민성·김혜미·김현우·정준희·임현우·임현숙·임현숙·임현숙 = 밭인 23일(수) 무등장례장 201호 062-515-4488.

▲마을 까지 편안한 문의(062)227-4000

## 화족

▲강연홍·김인경씨 장남 익수군 유종현(서광주세무서 법무세관)·고순옥씨 장녀 진희양=27일(일) 오후 2시 수원 웨딩클래스 2층 웨딩클래스홀.

▲노양진(전 고려시멘트 상무이사)·조미숙씨 장남 우석군 문형남·조숙희씨 장녀 영미양=27일(일) 낮 12시 40분 헐리웨이 인 광주호텔 3층 로즈홀